

#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 원천기술 제품 품질 관리 나선다

- 국립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특허 제품 효과 유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일(목), 연구 개발된 ‘보리밥나무 활용 탈모 예방’ 원천기술 적용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원천기술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연구개발된 보리밥나무 추출물 탈모 예방 기능성 특허기술을 생활소재 생산업체에 이전한 바 있으며,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앞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가 진행한 탈모 예방 인체적용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함유된 토닉(시험군)이 미함유 토닉(대조군)에 비해 모발 개선 및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밥나무가 이 같은 탈모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료의 특정 부위 채취, 최적의 채취 시기 선정, 최적 추출 방법 등 고도의 원천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소는 기술 이전 업체들이 원료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전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시중에 보리밥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탈모 예방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은 공식 기술이전을 완료한 업체의 제품뿐”이라며, “소비자들

은 제품 구매 시 ‘국립산림과학원 특허기술 적용 제품’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책임자	소 장	권순덕 (055-760-5000)
		담당자	연구사	최식원 (055-760-5093)



<참고자료>

◎ 탈모 예방 인체적용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평가 항목	보리밥나무 토닉 (시험군)	일반 토닉 (대조군)	차이 (%p)
모발 밀도 개선	90%	50%	+40%p
탈락 모발 수 감소	80%	50%	+30%p
모발 굵기 개선	80%	50%	+30%p
모발 길이 개선	80%	40%	+40%p
지인 추천 의사	80%	40%	+40%p
재구매 의사	70%	50%	+20%p

좋음(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효성 평가